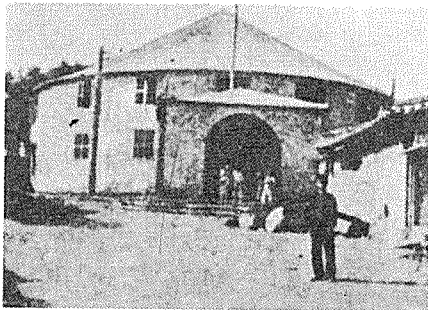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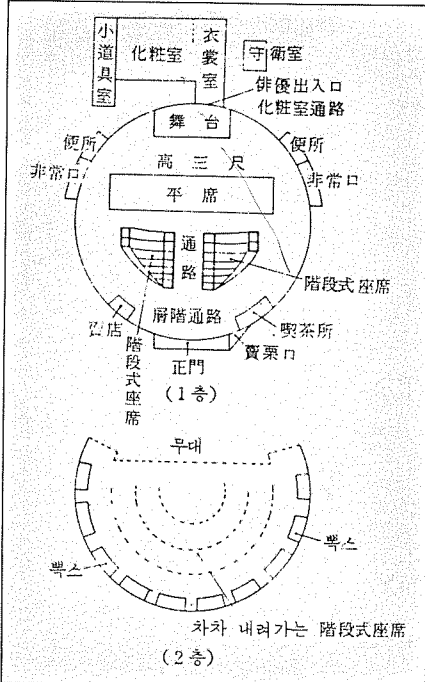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 (2)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金基哲 / 工學博士,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
by Kim, Kee Chull



(그림 1) 圓覺社 劇場 (1908) (李杜鉉, 韓國演劇史, P 203)



(그림 2) 圓覺社 平面略圖

1. 韓國演劇 公演場의 形成과 變遷

우리나라에는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西歐的 개념의 演劇은 없었다. 다시말하면 원시종교로 부터 짝든 자연발생적 演劇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舞臺도 野外舞臺이거나 임시假設舞臺의 기록만 남아 있는데 신라시대 利見臺를 최초의 舞臺로 추정하기도 하며, 조선조의 輪台 및 山臺 등의 기록이 있다.

西歐的 演劇의 舞臺는 開化期에 겨우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의 劇場史는 1902년 官內部所管의 協律可가 戲臺를 觀望하는 때부터 보고 있으나 阿峴洞舞童演戲場(皇城新聞 1899. 4. 3)이 기록상 최초인것 같고 용산무동연극장(황성신문 1900. 3. 3)이 대체로 초창기 극장들이다. 그리고 開館年代가 확실치 않으나 1900년 전후 동대문안 광무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극장의 開設는 19세기 이후 서울이 상업도시로 번창해 감에 따라 演戲場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무대예술에 대한 인식외에 설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모일수 있는 장소로서의, 建物概念으로서의 극장공간으로 거의가 기존건물의 演劇場化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900년대에 순수 演劇專用劇場으로는 圓覺社 정도인데 그 규모 및 구조에 대해 여러사람들의 理論을 종합해 보면 客席規模는 500~600석 정도의 극장이었으며, 外形은 붉은벽돌로 등그렇게 생겼고 靛쪽한 회색양철지붕이며 내부는 원형으로 전측에서 후측으로 차차 높아지게 좌석을 배치하는 층단식 三方觀覽席이었다 한다. 그의 극장들로는 光武臺를 비롯해서 長安社(중부고동, 2층건물), 演興社(寺洞, 1908. 9월경 개장), 團興社(용산 1908, 9월경 개장) 團成社(종로3가) 音樂社 등이 1908년 전후해서 생겨났는데, 원각사와 단성사, 연흥사는 주로 판소리, 창극을 공연했고, 광무대와 장안사는 주로 재래의 가무를 공연했다. 광무대는 당초 창고와

같은 전기회사건물안에 간단히 演壇같은 것을 만들어 극장으로 1900년경부터 사용했고, 판소리나 놀랑패들의 집, 그리고 활동사진을 주로 상연하였다. 그러나 1908년 9월이후 본격 극장으로 재출발한 광무대는 1910년대에는 순전히 구극(판소리, 唱劇)을 위한 공연장으로 제공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新派劇에도 쓰도록 하였고, 1925. 6년에는 극단 토월회의 직영극장으로 사용되는 등 이어오다가 1931년 완전 폐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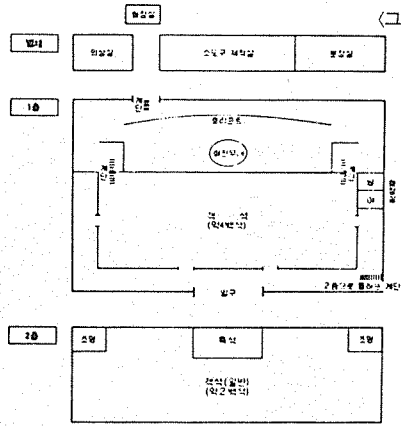
1908년경부터는 서울에 日人劇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1910년 경에는 御成座, 歌舞技座, 壽座, 京城座 등의 기록이 있다.

1922년 11월 조선극장은 영화, 연극 겸용극장으로 새로 생겨났고 극단들의 公演場所가 되었으나 여전히 영화관으로 존재하였고 1935년 11월 東洋劇場이 설립되면서 영화관쪽으로 기울어졌다. 東洋劇場은 서대문 충정로에 세워진 근대시설을 갖춘 최초의 본격적 연극전용극장이었다. 그 규모는 대지 488평, 건평 373평, 2층건물로 객석 648席의 1人座席의 자였으며, 회전무대, 호리존트도 국내처음 설치했고, 조명실과 무대밑에 기계실 일부를 난방시설을 갖추고 매표실 2개소가 있었으나 사무실이 없어 뒷터의 고건물에서 분장실, 합숙실, 소도구실로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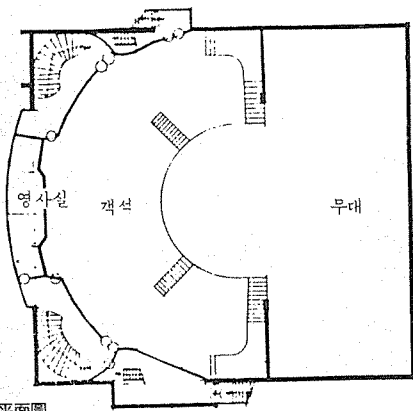
1935년 12월 10일 준공된 府民館은 대지 1,486평, 연건평 1,717평, 건평 58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높이 63尺, 탑의높이 144尺이었다. 이 부민관은 多目的홀로써 건립되었고, 客席 1,800席의 大構堂과 座席 400席, 立席 1,000席의 中構堂, 座席 160席의 小構堂과 부속실로 되어 많은 단체들이 貸館使用해 오던중 민족해방과 더불어 폐쇄되었다. 민족해방이후, 商業劇의 번창은 純粹劇의 장소를 그나마 빼앗아가 버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극장들인 중앙극장, 수도극장, 대륙극장, 동양극장, 단성사, 국제극장, 국도극장, 제일극장은 완전히 新派劇團들과 樂劇團, 아니면

◆ 金基哲

1944년 서울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후 87년 博士學位 取得, 현재 弘益大, 建大에 출강하며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을 자영하고 있다.



〈그림 3〉東洋劇場 正面略圖
(金美都, 東洋劇場의 設立과 運營,
한국연극, 1987. 3,
통권 130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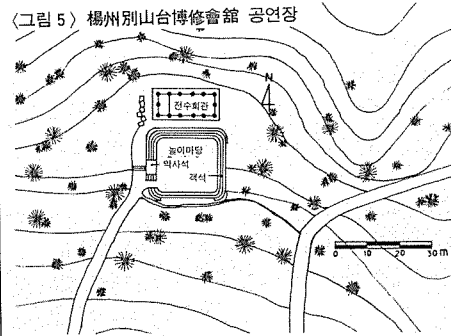
〈그림 4〉드라마 센터 平面圖

美國映畫가 접거했던 것이다. 1957년 6월 1일 환도후 국립극장이 舊明治座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대지500평, 건평749평의 3층건물로 객席1,180席이었으며 1973년 8월 장충동 현 국립극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연극무대로 사용되었다. 1958년 12월 22일 新劇史上 최초로 “圓覺社”라는 小劇場이 을지로2가 4번지에 개관되었다. 傳統舞踊 육성등 國樂進興을 위해 마련된 원각사는 아래층 217席과 위층89席 총306席의 소극장이었지만 공연예술인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무대가 되었다. 대지502평, 연건평229평 무대의 넓이 33尺5才, 깊이 21尺5才의 규모로서 시설을 제대로 갖춘 극장이었다. 1958년부터 추진되어 약4년만인 1962년 3월 드라마센터가 준공됐다. 건평220평 무대넓이 120평, 座席473席을 갖춘 본 무대와 양옆 사이드스테이지(Side-Stage) 이것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백스테이지가 객席뒤에 마련된 현대극을 위한 무대와 조명및 음향장치등을 갖추었지만 재정적문제로 1963년 1월에 막을 내리게 되고 현재는 서울예술전문대학의 강당으로 쓰여지고 있다. 近代期初 協律社이래로 傳統劇을 공연하는 몇몇 극장이 있었으나, 민족해방이후 6.25등의 격동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연극을 위한 극장은 극소수에 그쳤고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등 연극공연이 가능한 극장들도 다목적용도를 고려하여 건립되었다. 1970년대이후 소극장들이 생겨나고 실험극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2. 韓國傳統劇 公演場의 現況分析

가. 楊州別山台의 公演場

楊州別山台의 傳修會館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불국사담축 기슭에 콘크리트건물과 관리인숙소 및 전용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국도에서 북측으로 약 150m 지점에 농가들을 지나 傳修會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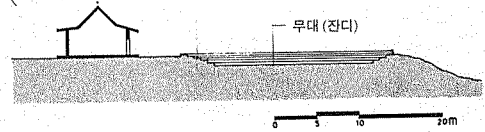


建物概要
層 數: 1층
面 積: 165.29㎡ (50 Py)
무대면적: 323㎡ (97.7 Py)
객석면적: 263㎡ (79.56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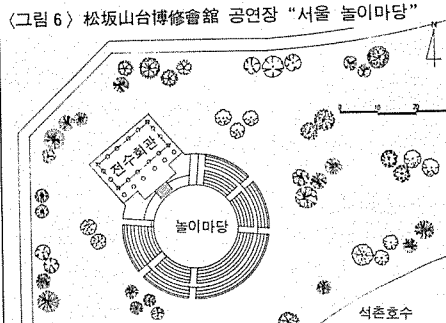


—전수회관

—객석 (폭800, 높이 300, 화강석)



무대 (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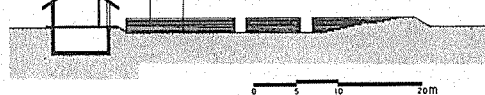
建物概要
層 數: 地下 1層, 地上 1層
面 積: 268㎡ (81.07 Py)
무대면적: 459㎡ (138.85 Py)
객석면적: 744㎡ (225.06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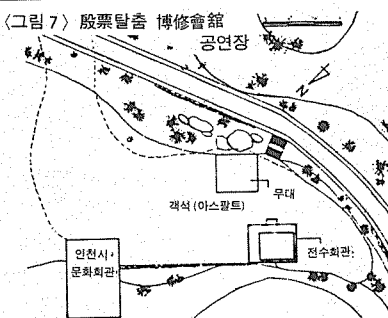
전수회관

객석 (폭800, 높이160, 콘크리트)

무대 (흙)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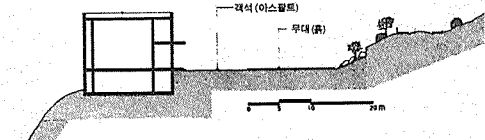
建物概要
層 數: 地下 1層, 地上 2層
面 積: 450㎡ (136.2 Py)
무대면적: 224㎡ (67.76 Py)
객석면적: 약 260㎡ (78.65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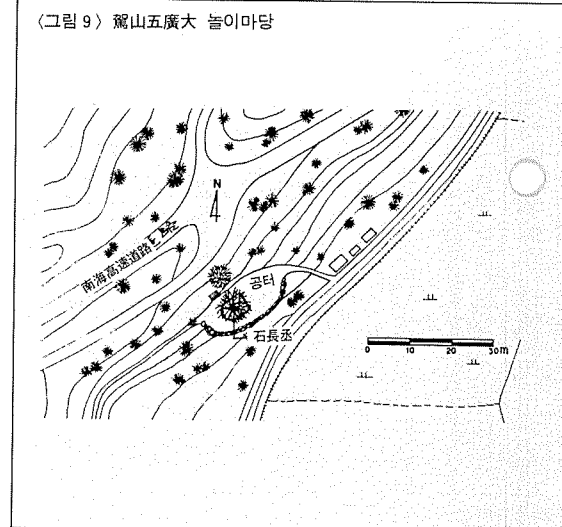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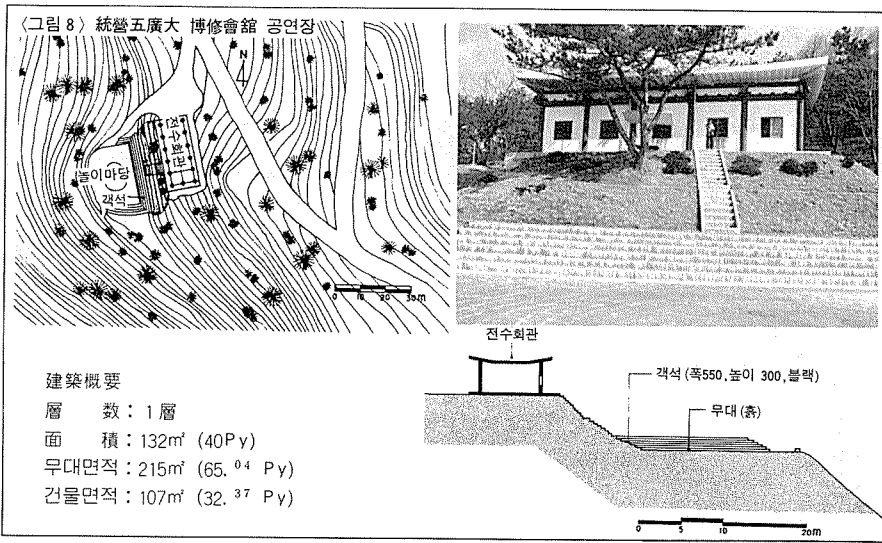
전수회관

객석 (이스탈트)

무대 (흙)



0 5 10 20m



있어 관중들의 접근은 용이하나 한적한 마을이 되어 많은 관중을 상대할 수 없다. 공연무대는 국도에 트여있어, 대형차의 소음에 영향을 받는다.

나. 松坡山台의 公演場
 松坡山台놀이의 전수회관은 서울 강동구 잠실 石村湖水 西湖 北西側에 있는 서울놀이마당에 있다. 콘크리트조의 한식건물과 공연장이 있으며 전수회관 북측과 남측에 도로가 인접해 있고 북측도로 건너편에 대형상가, 서측도로 건너편에 아파트群이 있다. 東側과 南側은 石村湖水公園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어 관중의 접근은 용이하다.

다. 殷栗탈춤의 公演場
 殷栗탈춤 전수회관은 인천시 남구 송의4동 수봉산 西側便길을 약600m 정도 올라가 전수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관중의 접근이 불편하다. 전수회관에는 사무실, 연습실과 숙식실이 있고 광장서측에 문화회관이 있다. 野外公演場은 광장 한편에 간이식 경계석으로 막고 흙을 다져놓았다. 광장북측 도로에서의 차량소음과 유원지시설에서의 소음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

라. 總營五廣大의 公演場
 總營五廣大의 전수회관은 경남 충무시 南望山公園서쪽에 콘크리트건물과 전용 野外公演場을 갖추고 있다. 충무內 東側 公園입구에서 공원내 경사길을 따라 약3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전수회관과 야외공연장은 바닥차이가 약 6m 정도 되며 회관과 공연장 사이에 객석을 배치하고 있다. 공연장의 환경은 전수회관 동측에서의 소음 특히 객석이 충무항을 향하고 있어 入出港하는 선박들의 소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改服廳으로 사용하는 회관과 야외공연장의 演戲者 동선은 높이차이등으로 不便하게 되어있다.

마. 固城五廣大 現況
 固城五廣大의 전수회관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측 동의동 남산공원입구에 연락사무소와 연습장을 두고 있다. 전용공연장은 없으며 남산공원위 보광사 앞 넓은 공터를 이용 놀이판을 벌인다고 한다.

바. 駕山五廣大 現況
 駕山五廣大의 전수회관은 경남 사천군 가산리 남해고속도로북측에 콘크리트건물만 서있고 공연장은 시설되어 있지않다. 옛날 놀던 곳에서 이따금씩 놀이판을 벌인다고 하는데 놀이판이 시작되었던 해안가 성황당터는 밭으로 변해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요즘은 石長丞(경남 民俗資料第3號 兪公터에서 놀이판을 벌인다고 한다. 큰 고목나무 아래에 石長丞이 있고, 올라오는 兪公터는 훼손을 막기위해 석축을 쌓았다. 축대위 공터는 길이 10m 폭 3.6m 정도이며 石長丞에는 韓紙로 금줄을 쳐놓았는데 마을의 福을 빌고 祭를 지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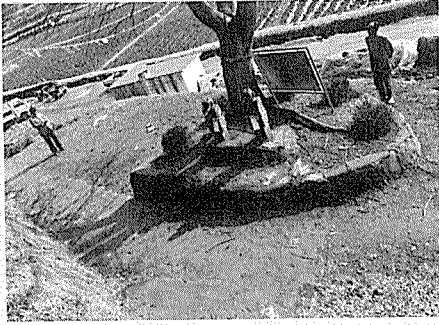
사. 水營野遊의 公演場
 水營野遊의 전수회관은 부산시 남구 수영동 수영공원北西側에 위치한다. 대로변에 직선거리 약250m 정도이나 진입도로가 시장등을 지나 공원입구까지 450m 정도 되어 관중의 접근이 불편하다. 음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공연장은 공사예정으로 완만한 경사지 그대로 쓰고있다.

아. 東萊野遊의 公演場
 東萊野遊의 전수회관은 부산시 동래구 金井山 東側 温泉場 金剛公園의 유원지안에 콘크리트 2층건물과 전용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온천장공원입구에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사길을 따라 유원지입구를 지나 약700m 지점에 전수회관이 있어 유원지를 찾는 사람이외는 접근하기가 容易하지 않다.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등의 영향은 적으나 유원지내 동물원들이 공연장주위에 산재해 있다. 전수회관이 산기슭에 있어 지형상때 때문에 공연장과는 높이차이가 약5.5m 정도되며, 객석이 전수회관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자.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主要無形文化財의 전수회관은 아니나, 많은 民俗演戲가 公演되는 國立劇場 野外無台는 서울 중구 장충동 南山公園 北東側기슭, 장충공원南側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중접근이 불편하고 東側도로등의 주위 音때문에 演戲環境이 좋지않다. 분장실은 國立劇場內를 사용하고 있어 演戲者動線이 좋지 않다.

차. 韓國民俗村 野外公演場
 관광단지인 한국민속촌에는 각종놀이가 演戲되는 野外公演場이 있다.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에 있는 한국민속촌내에 입구에서 약 500m 지점의 중앙에 야외공연장이 있다. 차량통행 도로나 주차장등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므로 소음등의 영향을 받지않아 演戲환경은 매우 좋다. 그러나 민속촌관광입장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관중의 접근이 불리하고, 공연시간도 민속촌의 개장시간인 주간에만 한하고 있다. 공연장은 地表에서 아래로 파내려간 圓形形態이며 북측편에는 굴을 만들어 분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客席部分은 北東側을 제외한 3/4정도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있다. 주간공연이 위주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명시설은 없으며, 객석 뒷부분 東南側에 스피커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카. 傳統劇 公演場의 現況分所
 以上の 전수회관 야외공연장들과 국립극장 야외민속공연장, 한국민속촌 야외공연장을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舞台주위 3면에 객석이 있는 형태가 많다.
 ○ 舞台形態는 지형에 따라 圓型, 長方形과 否定型의 여러形態이다.
 ○ 전수회관등의 건물을 舞台 背景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舞台와 客席의 區分은 客席前의 材料(화강석, 콘크리트)와 排水路에 의하고 있으나 관객이 많을 경우 舞台內에 까지 관객이 앉게된다.
 ○ 舞台面積이 큰곳은 전통극 이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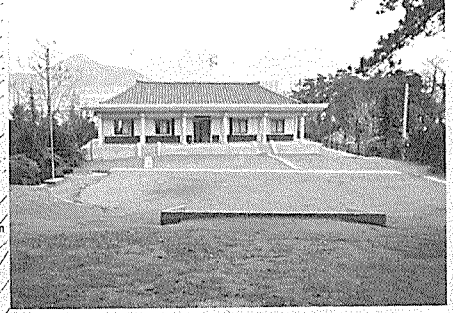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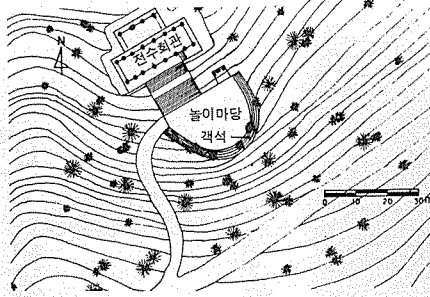
四物놀이, 광대놀이등의 다수인원이 등장하는 놀이에 이용되고 있다.
 ○ 전체공연장에서 관객의 접근성과 공연환경이 모두 좋은 곳은 한곳도 없으며 공연장은 단순히 야외에 客席만 갖춘 형태가 대부분이다.

3. 東洋傳統劇 公演場의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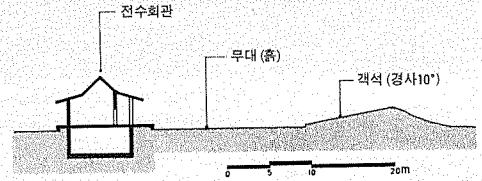
印度와 中國은 宗教, 政治, 社會, 文化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와 日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印度는 佛敎를 통해서 中國은 儒敎와 道敎, 오랜 정치적 유대관계와 漢文文化등을 통해서, 日本은 모든 文物이 그 유입과정으로 말미암은 우리와의 유사성 때문에 모두 多小를 막론하고 우리나라文化와 동질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 日本, 印度등 東洋의 대부분의 나라는 佛敎및 儒敎圈에 속해있는 국가들로 佛敎와 儒敎精神에 바탕을 두고 이를 정신적 토양으로 해서 演劇을 발전시켰으며, 東洋演劇의 내용및 특징을 살펴 보더라도 동질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질성은 그들의 연극및 무대특징이 우리 전통극 무대의 구성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들 演劇은 모두 기본적으로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음악과 시 노래와 춤으로 엮여 나가는 상징적인 演劇인데, 印度演劇은 詩의인 아름다움이, 中國演劇은 唱이, 그리고 日本演劇은 춤이 그 演劇의 中心이 되어 있다. 특징을 요약해 보면
 ○ 노오(能)의 씨대(シテ)만 제외하고 모두 假面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얼굴에 분장을 진하게 하여 假面과 같은 효과를 낸다.
 ○ 素材는 모두 잘 알려진 敍事詩나 古事, 傳說등에서 따오며 佛敎및 儒敎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대개가 happy ending 으로 끝난다.
 ○ 公演初에 거행하는 宗教的인 儀式의 伴奏樂에 의해 主役俳優가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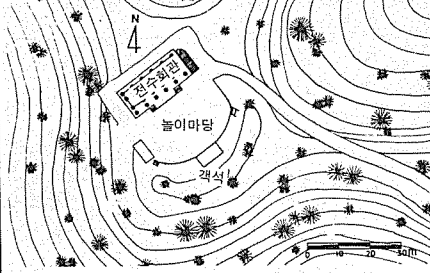
(그림10) 水營野遊 博修會館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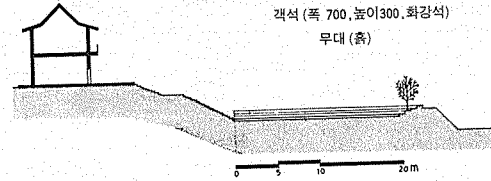
建物概要
 層 数 : 1層
 面 積 : 214.5 m² (64.98 Py)
 무대면적 : 약 680m² (205.7 Py)
 건물면적 : 약 200m² (60.5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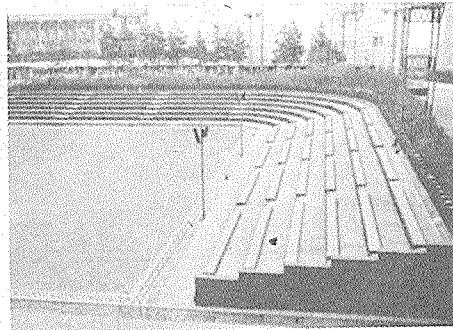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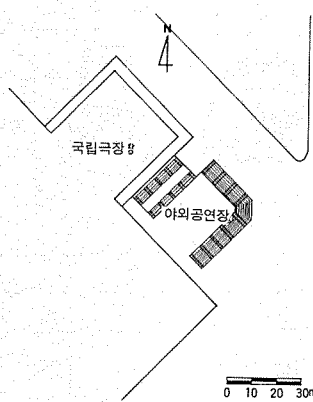
(그림11) 東萊野遊 博修會館 公演場



建物概要
 層 数 : 2層
 面 積 : 724m² (219 Py)
 무대면적 : 393m² (118.88 Py)
 건물면적 : 146m² (4.17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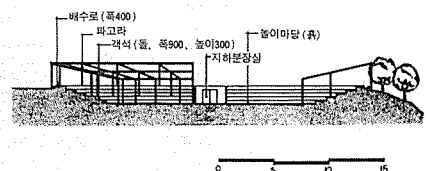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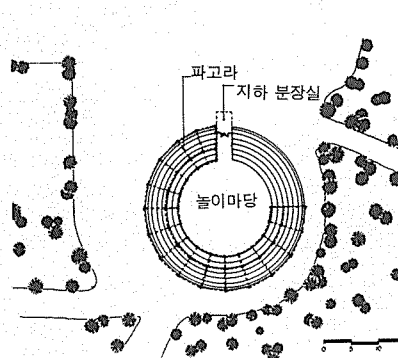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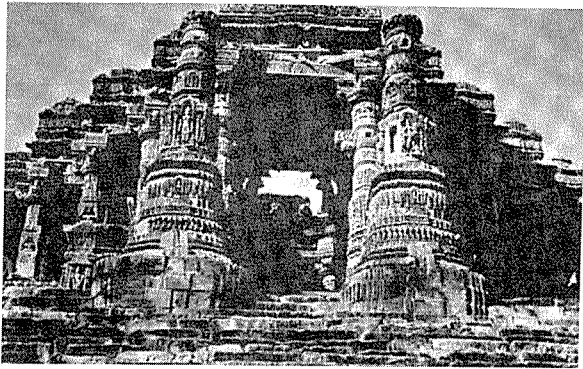
(그림12)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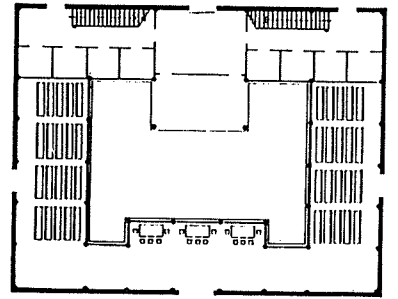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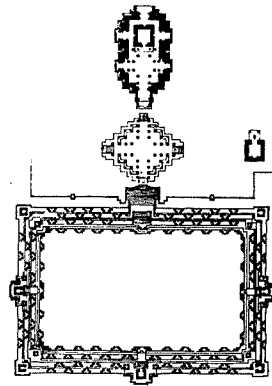
무대면적 : 424m² (128.26 Py)
 객석면적 : 564m² (170.61 Py)

(그림13) 韓國民俗村 野外公演場





(그림 14) Sun Temple, modera (神展앞에서 演劇이 行하여졌다)
(國察建築 Vol 33, 1966, 10월호 P. 78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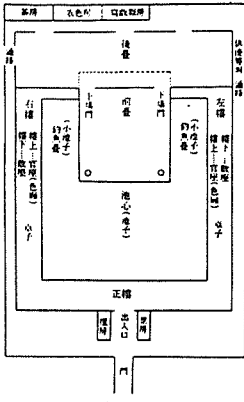
(그림 15) 中國 王官 사설劇場 平面
(A. Nicole; The development of the theatre P 2에서 轉載)

(표 1) 전통극 공연장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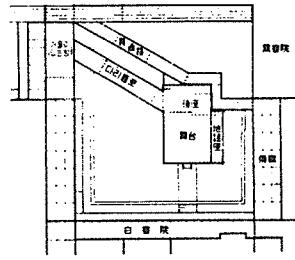
공연장		양주 별산대	송파 산대	통영 오광대	동래 야유	국립극장 놀이마당	민속촌 놀이마당	은울	수영 야유
구분	무대면적 (㎡)	323	459	215	393	567	232	224	400
	가시거리 (M) (H : 414기준)	3.89	16.93	2.1	2.76	4.15	3.63	•	20
	유효무대면적(㎡) 비율(%)	104.4 (32)	•	148.5 (69.1)	277 (70.5)	290 (51.1)	77.6 (33.4)	•	•
	가시선에 의해 제외되는 면적 (㎡)	219.6	459	66.5	116	277	154.4	•	•
객석	폭(mm)	800	800	550	700	850	900	•	•
	높이(mm)	270	150	300	300	270	300	•	•
	면적(㎡)	263	744	107	146	564	366.4	•	•
	재료	화강석	콘크리트	블럭	화강석	콘크리트	돌	•	•
무대재료	잔디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공연장형태	장방형	원형	장방형	반타원형	장방형	원형	장방형	장방형	장방형
개념도									

(표 2) 전통극 공연장 현황분석(기준)

구분	내용	양호	보통	불량	
관객의 접근성	동원능력	주변마을의 크기	시 이상	군·읍	리단위 이하
	교통상태	대중교통수단이용 및 도보 거리	250m 미만	250~500m	500m 이상
	인식도	유도표지 및 주변 인식물의 유무	유도표지	유도표지 없으나 주변 인식물 있음	유도표지 인식물 없음
공연환경	집중력	주변상태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음	주위가 개방됨	건물등 주변이 산만함
	소음	소음정도 및 돌발적 소음 유무	40dB 정도 조용함	50dB 미만, 조용하나 돌발 소음이 이따금 있음	50dB 이상, 소란한 환경
	바람	바람의 빈도 및 속도	4m/sec 이하	10m/sec 이하, 이따금 분다.	10m/sec 초과, 자주 분다.
연희자동선	분장실과 공연장	거리 및 높이차	거리 10m 이내 높이차 3.5m 이내	거리 10m 초과 높이차 3.5m 정도	거리 20m 초과 높이차 3.5m 이상
	연희자동선차단	통로유무 및 유무 및 관객에 의한 동선차단	연희자 통로 있음	통로는 있으나 객석과 혼재	전용통로 없음
객석평가	시선	앞좌석 시선 방해정도 무대 면이 보이는 범위	80% 이상 보인다.	60%~80% 정도 보인다.	60% 미만이 보인다.
	객석상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관객 통과 여부	통과	약간 비켜나면 통과할 수 있다.	일어선 상태에서 통과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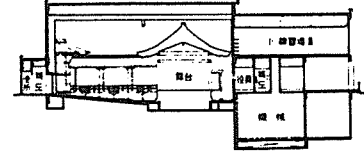
(그림 16) 京成劇場 平面
(青木正見, 支那近世 戯曲史, P. 180에서 轉載)



(그림 17) 西本願寺 北能舞臺, 京都市

(1582년에 건조된 것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能무대이다. 客席은 舞臺와 別*에 있으며 回都를 利用하고 있다. 이 형식은 江戸時代를 통해 다른 能舞臺에 踏襲되었고 관객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能을 감상한다.)

(尹定燮 監修: 建築 設計 資料集成 7권, P. 96에서 轉載)



(표 3) 전통극 공연장 현황분석

구분	공연장	공연장 특성									
		양주별산대	송파산대	통영오광대	동래야유	국립극장놀이마당	민속촌놀이마당	은울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수영야유
관객의 접근성	동원능력	△	○	○	○	○	△	○	□	△	○
	교통여건	□	○	□	△	○	△	□	□	△	□
	인식도	○	○	○	△	□	○	△	△	△	△
공연환경	주위집중력	○	□	□	○	○	○	□	□	○	○
	소음	□	△	△	○	□	○	□	○	•	○
	바람 및 태양광선	□	□	△	○	○	○	□	△	•	□
연희자동선	분장실과의 관계	○	○	△	△	□	○	□	△	•	○
	동선차단	○	□	△	△	○	○	△	△	•	○
객석평가	시선	○	△	○	□	○	○	•	•	•	•
	객석상태	○	○	△	□	○	○	•	•	•	•

○ 양호 △ 불량 □ 보통 • 해당없음

(표 4) 동양 3국의 무대특징 비교

구분	인도	중국	일본		
			能	歌舞伎	
무대	모양	네모진 돌출무대	네모진 돌출무대	본무대: 장방형, 정사각형 Hashigakari: 복도무대	본무대: 장방형 Hanamichi: 복도무대
	면수	2면	1면	2면	
	면적	본무대+작은무대 (12ft ²)	17~20척 ²	본무대: 18ft ² Hashigakari: 폭6ft 길이33ft	본무대: 폭 90ft Hanamichi: 길이 45ft
	높이	•	90~120cm	90~120cm	
	바닥	•	움단	마루바닥, 맨나무널판지 (음향효과)	
	기둥	4개 (객석의 신분구분)	2개	4개	기둥흔적
	지붕	없음	있음	있음	
출입구	주역: Yabanika 기타: 악사석 양면 2개의 문	무대위 좌문: 등장 우문: 퇴장	주역: Hashigakari 기타: 무대위 왼쪽	주역: Hanamichi 기타: 무대위 왼쪽	
	객석	무대의 3면	무대의 3면	무대의 3면	무대의 1면 (현대)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음	없음	경계선에 하얀자갈	Proscenium (현대)	
배경	Yabanika (그림막)	진홍빛 커튼	소나무 그림		
악사석	무대의 뒤쪽 출입구사이	무대위 오른쪽	무대 뒤쪽		
소도구	약간	테이블, 나무의자2, 그외 약간	약간 (실물암시)		
소도구계	무대뒤 (Off-stage)	무대위 뒤쪽 (극중자유왕래)	무대 맨뒤 오른쪽 구석 (자유왕래)		
분장실	막뒤 (장치실 겸용)	무대뒤 (분장실겸 휴게소)	(본무대와 떨어져 있음) 갱의실겸 분장실		
조명	백광	백광	백광		

○ 印度劇이 祭儀와 오락을 적절하게 겸한 연극이라면 中國演劇은 오락면을 중시한 연극이라 하겠고, 일본연극은 祭儀나

儀式面이 짙은 연극이라 할 수 있다. ○ 무대에서도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무대의 특징을 간추려

비교하면 위 <표4>와 같다.